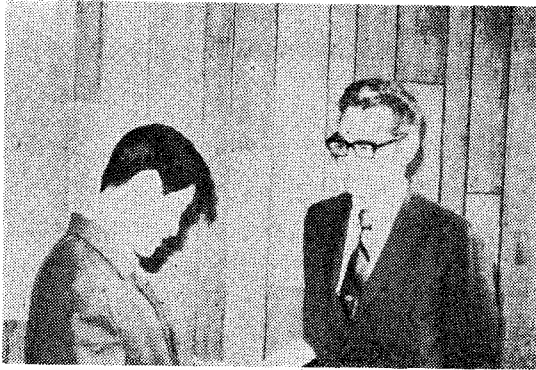


축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요망된다

—미국 곡물협회 극동지부장 「테일러(Taylor)」씨—



※「테일러」씨 푸로필※

한국동란 참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농업언론학과 졸업
오리건 주립대학도 농업경제학(석사)
하버드대학부설 국제마케팅과정 수료
캘리포니아 화버 매가진 편집장
오리건 주립대학교 조교수
하버드 대학 국제마케팅연구소 농업경제자문관
미국 곡물협회 극동지부장(현재)

「한국의 양계산업이 경이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25일 여성회관에서 미국 곡물협회, 대두협회, 유지협회, 한국사료협회가 공동으로 비육우 사업에 관한 강습회를 가진 자리에서 주최측으로 인사말하고 내려오는 테일러씨를 맞이하였다.

—앞으로 어떤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까요?

「첫째로 축산업 발달의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양계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소의 숫자는 매년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육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면 그 여파가 반드시 양계분야에도 미치게 됩니다.

둘째로는 양계분야의 외국 의존도에 있습니다. 병아리, 사료, 약품을 모두 수입하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벽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사료자원개발과 육종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씨는 1950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1968년 농협외고문관으로 부임했던 이래 한국을 스물 다섯번이나 방문한 한국통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폐허와 가난이 다치는 이나라가 부흥될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었는데 68년 이래 매번 올 때마다 너무나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장하는 나라의 활기찬 모습이 한국의 장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얘기에 열을 올리는 씨는 「커피 먼저 들고 얘기합시다.」는 말에 설탕도 밀크도 타지 않은 커피를 단숨에 마셔버리고 「청자」를 한대피워 묻다. 커피는 블랙이 제맛이라면 설탕을 세스폰하고 또 조금더 넣는 기사를 이상한 듯이 바라본다.

—곡물협회에 관한 얘기를 좀.....

「미국 곡물협회는 미농부성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해외시장 개척, 수급조절, 연구 조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도포를 비롯하여 해외에 6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도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사무실은 6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이며, 처음에는 주로 육우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육우단지조성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양계분야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을 할 것입니다.」

「4월에 윤전수, 비서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사무실이 발족되면 2개월간 준비업무를 하게됩니다. 저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활동이 한국 축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結>